Cello Concerto No. 1 in C major, Hob. VIIb:1

- □□

정보

Joseph Haydn: Cello Concerto No. 1 in C major,

Hob. VIIb:1

작곡가: Joseph Haydn (1732–1809)
작품명: Cello Concerto No. 1 in C major, Hob. VIIb:1
장르: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곡 시기: 1762–1765년경
초연: 1962년 5월 19일, 프라하 봄 축제, Miloš Sádlo·Charles Mackerras
IMSLP:

https://imslp.org/wiki/Cello_Concerto_No.1_in_C_major%2C_Hob.VIIb:1_(Haydn%2C_Joseph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ello_Concerto_No.1(Haydn)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는 18세기 중반의 궁정 악단을 위해 쓰인 것으로 여겨지는 세 악장
협주곡이다 . 독주 첼로가 오보에 두 대, 호른 두 대, 현악기와 대화하며, 빠른 Moderato, 서정적인 Adagio, 활기찬 Finale. Allegro molto 가 이어진다. 악보는 1961년 프라하의 자료군에서 발견된 필사 파트를
바탕으로 되살아났고 , 이듬해 프라하에서 현대 초연이 열렸다.

개요
하이든은 1761년부터 에스테르하지 가문에 고용되어 궁정 악단을 이끌었다. 이 협주곡은 그 시기의 젊은 첼리스트 Joseph Franz Weigl과 연결되어 설명되곤 한다. Weigl이 에스테르하지 악단에서 활동했고 발견된 파트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점이 근거지만, 의뢰서나 하이든의 헌정문이 전해지는 작품은 아니다.

하이든의 1765년 작품 목록에는 제 1악장의 주제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자필 총보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의 연주 악보는 18세기 필사 파트와 하이든 작품 전집의 대조를 통해 편집되었다 . 이 독특한 전승 과정이 오랫동안 작품을 레퍼토리에서 사라지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출판 정보와 자료

1961년 프라하 국립박물관의 Radenín 자료군에서 18세기 관현악 파트가 발견되었다 . Oldřich Pulkert가 자료를 정리하던 중 파트를 찾아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발견 자료는 하이든 자필이 아닌 필사본이지만 , 1765년 작품 목록의 주제와 음악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이든의 협주곡으로 편집되었다 .

1963년 Editio Supraphon의 Pulkert·Karel Šolc 판이 현대 초연과 가까운 시기에 출판되었고, 1981년에는 Joseph Haydn Werke의 비평판이 나왔다. 오늘날에는 Sonja Gerlach가 편집한 Bärenreiter 연구용 총보와 Henle HN 417 첼로 ·피아노판을 함께 참고한다. 제 1·제 2악장의 카덴차는 필사자가 후대에 덧붙인 것이므로 하이든의 자필 카덴차로 볼 수 없다.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23–26분 정도다. Maria Kliegel과 쾰른 실내 관현악단의 Naxos 녹음은 Moderato 9분, Adagio 9분 57초, Allegro molto 6분 48초로, 작품 전체가 25분 45초다. 반복과 카덴차 선택에 따라 실제 공연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편성

독주: 첼로
목관: 오보에 2
금관: 호른 2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와 오르간은 원작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1760년대 에스테르하지 악단에서는 첼로 ·콘트라베이스 ·violone·바순이 저음부를 보강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바순이 이 협주곡의 독립 파트였다는 증거는 없다. 현대 연주는 오보에 두 대와 호른 두 대, 현악 합주를 기본으로 삼는다.

악장별 구성

I. Moderato

첫 악장은 C장조의 밝은 음향 속에서 투티와 독주 첼로가 주제를 주고받는다 . 짧은 관현악 합주가 방향을 제시하면 첼로가 높은 음역으로 응답하고, 빠른 음형과 도약으로 독주자의 기교를 드러낸다. 바로크 협주곡의 리토르넬로 관습과 고전주의 협주곡의 진행이 만나는 악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II. Adagio

F장조의 느린 악장은 첼로의 긴 호흡을 앞세운다. 독주 선율은 낮은 음역의 따뜻함과 높은 음역의 투명함을 오가며, 오보에와 현악은 짧은 응답과 부드러운 화음으로 뒤를 받친다. 필사 파트에 카덴차가 남아 있지만, 이는 후대 필사자의 첨가로 편집되어 있다.

III. Finale. Allegro molto

마지막 악장은 C장조로 돌아와 빠른 움직임을 펼친다. 첼로는 짧은 음형과 넓은 도약을 이어 가며, 현악의 리듬과 목관의 악구 사이를 가볍게 누빈다. 제 1악장보다 짧지만 독주부의 속도와 음역을 한꺼번에 넓히며, 카덴차 없이 힘찬 종지로 끝난다.

판본과 연주

현대 연주자는 1963년 Supraphon 계열 판본, 1981년 Joseph Haydn Werke 비평판, Bärenreiter·Henle 판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비평판은 알려진 필사 파트를 바탕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원자료에 없는 편집 보충은 표시하도록 했다. 악보마다 장식음, 아티큘레이션 , 카덴차의 제시 방식이 다르므로 판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연의 생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962년 프라하 봄 축제에서 첼리스트 Miloš Sádlo와 지휘자 Charles Mackerras가 현대 초연을 맡았고, 체코 라디오 교향악단이 함께했다. Sádlo는 이후 Mstislav Rostropovich 와 첼로 ·피아노 편곡과 카덴차를 마련했다. 이 자료는 20세기 연주 전통을 보여 주는 후대의 작업이다.

독주 첼로와 소규모 합주의 균형은 이 작품의 핵심이다. 관현악을 지나치게 크게 울리면 첼로의 섬세한 장식과 긴 프레이즈가 묻히므로, 고전주의 협주곡 특유의 가벼운 질감과 대화하는 음량이 필요하다. 느린 악장에서는
활의 속도와 비브라토의 폭이, 빠른 악장에서는 명료한 아티큘레이션이 음악의 성격을 좌우한다.

주요 레코딩

Miloš Sádlo / Charles Mackerras / Czechoslovak Radio Symphony Orchestra
(1962년 현대 초연 ·초기 녹음, Supraphon): 작품이 발견된 직후의 연주 전통을 보여 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Christophe Coin / Christopher Hogwood / Academy of Ancient Music (1982년 녹음
, Decca 4762470): 고악기 연주 관행을 바탕으로 소규모 궁정 악단의 투명한 음향을 살핀다. Maria Kliegel / Helmut Müller-Brühl / Cologne Chamber Orchestra (2001년,
Naxos 8.555041): 세 악장을 25분 45초에 수록했으며 , 첼로의 선율과 현악 합주의 균형이
분명하다.

주요 자료

Bärenreiter, Concerto for Violoncello No. 1 연구용 총보: Sonja Gerlach 편집판과 작곡 연대 ·
발견 자료.

G. Henle Verlag, HN 417: 첼로 ·피아노판, 운지 ·활쓰기와 현대 카덴차 자료.

IMSLP, Cello Concerto No. 1 in C major: 악장 ·마디 ·편곡 ·판본 목록.

WFMT,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의 재발견: 1961년 발견과 1962년 현대 초연.

Winston-Salem Symphony, 하이든 C장조 첼로 협주곡: Weigl 연계와 세 악장 해설.

Naxos, Cello Concertos Nos. 1, 2 and 4: Kliegel·Müller-Brühl 녹음과 악장별 시간.

- Eloquence Classics, □□□ □□ □□□ □□ □□ : Sádlo·Mackerras □□ □□□ □□ □□ .